EU, 신규가맹국 사이프러스의 혜택

EU 농업집행위원 피슐러(Franz Fischler)는 니오시아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사이프러스가 EU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사이프러스의 농민들이 EU에 가입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10년 전 오스트리아도 EU에 가입하면서 유사한 발전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세계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EU와 함께 하던 하지 않던 간에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사이프러스의 농업부문 종사자들이 EU로부터 강력한 지원, 예를 들면 상당한 할당량(generous quotas)과 지역발전배분(rural development allocation), 여기에 더해 낙후지역(deprived areas)에 대한 원조와 소고기 재고량, 과채류 재고의 특별 하락에 대한 원조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프러스는 EU에 가입함으로써 농업부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에도 EU에 신규 가입한 모든 회원국들에게 특별이행기간[1)]과 지역발전방안이 제공될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다.

피슐러는 싸이프러스 농민들에게 EU 지역발전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충고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EU가 제공한 75억 유로를 포함하여 약 1억 6,000만 유로가 지역발전계획에 사용될 예정이다. 눈여겨 볼 것은 이러한 기금을 이용해 효과적인 지역발전계획이 수행된다

1) 신규 회원국의 농민은 EU 가입 첫 해부터 직접지불을 받을 자격을 획득한다. 하지만 10년의 진입기간이 지나야 EU-15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3년이 되면 신규회원국이 받게 되는 직불 수준은 기존 EU회원국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면 사이프러스의 조건불리지역(less favoured areas)의 59.2%, 농가 23,973호가 편익을 볼 수 있다. “다양성과 농업환경을 위한 지원조치는 비혜택지역(disadvantaged regions)에서의 고용창출과 사이프러스의 열약한 생태계를 관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연자원의 지속적 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경관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피슐러는 강조했다.

그는 또한 EU 회원국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이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EU에 가입함으로써 지속적인 평화, 안정, 번영의 땅으로 입증되었다. 무역측면에서 볼 때, 사이프러스는 4억 5,000만 명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방대한 EU 내부시장에 관세제한, 수출할당량, 무역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프러스는 총 생산품의 54%, 농산물의 70.5%를 EU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사이프러스는 국제시장에서 자신들의 주력 부문인 선박, 신용, 무역 분야에서 점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은 거대한 재정적·구조적으로 큰 편익을 얻고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억 유로를 상회하는 자금이 구조기금(structural funds), 통합기금(cohesion funds), 국가기금(national funds)이라는 이름으로 EU 농업부에 의해 이용될 것이다.”고, 피슐러는 언급하였다.

수산업분야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의 전략은 경쟁력 있고 지속적인 상업적 수산업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수산물을 공급하고, 시장의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유럽 국가들의 도전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시행구조의 현대화와 새로운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가 제공한 340만 유로를 포함한 770만 유로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프로그램에 투입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출처: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